우주에도 '절'이…위성사찰 설치 추진

日진언종, 테라스페이스와 MOU

각종 재해서 전승 필요
사물 인터넷 위성 속엔
대일여래상 등 설치돼
우주 인터넷 법회 예정

박영빈 객원 기자



우주에 인공위성으로 조성될 우주사찰 고운지. 사진출처=고운지 공식홈페이지

차세대 인터넷 기술로 손꼽히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이하 Iot)와 불교가 만났다. 지역과 나라를 초월하여 우주에서 세계평화를 비는 우주공간의 사찰이 탄생할 예정이다. 지난 2월 4일 일본의 '포브스 재팬', '교토신문' 등의 주요 언론들은 교토 고찰과 Iot의 접목을 특별 보도했다.

Iot 기술은 고유식별이 가능한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환경을 말한다. Iot는 기존의 인위적인 조작이 필요했던 블루투스나 센서 데이터와 달리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들 간에 서로 자체적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인터넷 환경을 구축한다.

지난 1일 교토의 천년고찰이자 진언종 다이고지파의 총본산인 다이고지(醍醐寺)는 인공위성개발에 착수한 민간기업 '테라스페이스' 와 업무기술제휴를 체결했다. 오는 2023년 발사할 예정인 Iot위성에 우주사찰 '죠텐인 고운지(浄天院劫蘊寺)' 를 설치하기 위해서다.

사찰을 우주에 세우는 것으로 하늘을 정화한다는 뜻에서 사명을 '죠텐인(浄天院)', 한 우주가 생겨나고 소멸하는 시간인 겁(劫)과 인간의 기본 구성요소인 오온(五蘊)에서 따와 우리가 이 광대한 우주에서 살고 있다는 뜻으로 '고운지(劫蘊寺)' 라는 이름도 더해졌다.

이 프로젝트는 약 1년 전. 산내에 막대한 양의 성보와 문화재를 보유한 다이고지가 화재를 비롯한 재해와 도난 등의 문제를 사찰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과제를 고민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교토시 히가시야마(東山) 지구의 다이고산 전체가 다이고지의 사역인데다, 가람이 산 위와 산 아래의 두 구역에 산재해 있어 사찰 자체의 인원과 시스템만으로는 재해와 도난 문제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실제 다이고지는 2008년 산 위의 가람에서 낙뢰로 화재가 발생해 본당은 물론 수백 년간 봉안해 온 본존불인 여의륜관음상까지 전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다이고지는 사람의 조작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면서 우주에서 사찰을 바라 볼 수 있는 Iot위성에 대한 구상을 시작했다. 위성을 통해 Iot 시스템을 운용하고 다이고지의 모습을 그대로 우주에 띄울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됐다.

오는 2023년 발사될 6U사이즈(약 20x10x30cm)의 초소형 인공위성의 절반에는 Iot시스템 설비가, 절반에는 진언종의 본존인 대일여래상과 양계만다라가 봉안될 예정이다. 위성은 지구상 400km~500km의 높이의 저궤도에서 1시간 반 가량 지구를 맴돌며 위치정보를 스마트폰 앱 등으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다이고지 측은 "발사되는 인공위성에 진언종 사찰의 가장 기본적인 봉안물인 본존 대일여래와 양계만다라를 탑재해 발사하는 것으로 사찰을 우주에 건립한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전했다. 또한 "다이고지는 매년 진호국가를 위한 기도를 봉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 나라뿐만 아니라 인간의 역사를 담고 있는 우주를 지키는 진호우주를 통해 세계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고자 한다. 고운지 위성에서 보내는 실시간 위치정보와 우주의 환경을 중계 받아 정말로 우주에서 기원하는 마음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이고지 측은 실제 이 우주사찰 고운지를 종단에 정식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우주법회' 를 봉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상에서 접수한 기도의 내용을 Iot를 이용해 우주에 전하는 우주기원도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첫 우주 법회는 2월 8일부터 시작됐으며, 법회는 유튜브를 통해 중계된다.

고대 불교무용, 온라인으로 배운다

네팔불교, 불교 무용 온라인 강좌 개시

온라인을 통한 불교강의가 늘어나는 가운데 고대 불교무용을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게 됐다. 지난 12일 불교 전문 온라인 매체 '글로벌 부디스트 도어' 는 네팔의 불교 무용 온라인 강좌를 보도했다.

네팔의 국제적인 무용가이자 불교 지도자인 프라즈왈 바즈라차리야(Prajwal Vajracharya)는 2월 20일부터 5월 8일까지 3개월간 매주 온라인으로 '신성한 네팔의 불교무용' 강좌를 제공한다. 이 강좌는 네팔불교에서 전해지는 전통 음악과 무용, 미술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룬다.

프라즈왈은 35대째 이어오는 네팔밀교가문의 수행자로 대대로 전승해온 만다라, 진언, 수인, 불교무용을 모두 전수 받았다. 네와리 불교라고도 불리는 네팔불교는 현존하는 불교전통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주로 재가수행자들을 중심으로 전해져왔다.

네와리 불교의 수행에선 깨달음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위하여 노래와 춤을 수행에 이용한다. 마음을 닦는 과정으로 이용되는 이 고대의 불교무용은 춤과 수인, 음악을 이용하여 공(空)의 경지를 체험하고 그 안에서 자신을 일깨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프라즈왈 바즈라차리야
사진출처=글로벌부디스트도어

이러한 가장 오래된 형태의 불교의례에 대한 인류학적, 학술적 관심은 크지만 네와리 불교의례는 티베트나 일본 밀교의 의례에 비해 연구가 미흡한 상태이다. 이러한 가운데 대대로 네와리 불교를 수행해온 집안의 수행자가 구체적인 고대 전승을 대중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매우 드문 기회로 주목 받고 있다.

프라즈왈은 총 3단계에 걸쳐 강의를 진행한다. 먼저 네와리 불교무용에 대한 기초를 강의한 후, 관세음보살춤, 따라보살춤의 순으로 줌(ZOOM)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한다. 김민재 객원기자

"숯된 불상이라도, 보존해 모실 터"

천년고찰 콘타이지, 소실 불상 발견

숯상태 임에도 복원 밝혀
9세기때 성보가치 그대로
사찰 재건 프로젝트 발동


탄화된 불상들을 보이는 주지 미츠겐스님과 최초발견자 에자키씨. 사진출처=이세신문

25년전 화재로 본당과 함께 소실되었다고 생각했던 본존불의 잔해가 우연히 발견됐다. 지난 2월 3일 일본의 '이세신문' 은 토우바(鳥羽)시의 천년고찰 콘타이지(金胎寺)에서 발견된 불상들의 소식을 전했다.

콘타이지는 9세기경, 일본 진언종의 개조인 쿠카이(空海)대사가 이세신궁을 참배하고 돌아오는 길에 세웠다는 연기가 전해지는 천년고찰이다. 본존인 11면천수관음상은 쿠카이 대사가 직접 복장과 점안을 했다고 전해지는 불상이며, 콘타이지는 지역 영주들이 대대로 비호하던 원찰로 지역에서는 신앙의 중심지로 유명한 사찰이다.

그러나 지난 1997년 대화재로 일부 전각과 창고를 제외하고 전소, 쿠카이 대사가 조성한 본존불마저 소실됐다. 이후 화마를 면한 전각을 임시본당으로 삼아 사찰의 재건에 힘써오고 있다. 그러나 화재 이전 쿠카이 대사가 조성한 본존인 천수관음상에 대한 정보가 미비해 불상의 복원과 더불어 사찰의 재건에 여러 문제가 많았다.

지난해 말, 현 주지인 나가타니 미츠겐 스님(35)과 신도인 에자키 미츠루씨(72)가 화마를 면한 창고를 정리하던 중 정체를 알 수 없는 상자들을 발견했다. 상자 안에서는 거의 숯이 된 상태의 불상들과 불구들이 보관돼 있었다.

발견된 불상들은 본존이었던 11면관음상의 머리와 손, 발 등의 파편들과 말사였던 사찰의 약사여래상 등으로 밝혀졌다. 또 불구와 상량문 등 화재 전의 사찰 규모에 대한 자료까지 약 200여 점의 잔해들로 집계됐다. 특히 약사여래상은 8세기경에 조성되었던 것으로 토우바시에 현존하는 불상들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불상들의 잔해가 어떻게 창고에서 잠자고 있었는지는 현재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화재현장을 정리하면서 수습한 것을 보관한 것으로 보이지만, 언제 누가 하였는지 등에 대해서는 현재 신도회와 전대 주지 스님 등의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숯덩이의 잔해로 발견된 불상들에 대해 사찰과 신도회는 기뻐하면서도 일부는 "숯이 된 채로 본래의 모습을 알 수 없는 불상을 모실 순 없다"며 박물관 위탁 등 다른 방향으로 잔해들을 처분하자는 목소리도 일었다. 그러나 사찰측은 "숯덩이라도 그 형태가 있다는 점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제대로 보존하여 재건을 향한 희망의 상징으로 모시겠다"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 기자

태국, 승려 사진 무단사용 항의

태국불교청, '슈프림'에 서한 발송

지난 18일 방콕 포스트는 태국 국가불교청(NoB)이 미국 패션 브랜드 슈프림(Supreme)에 승려 사진 무단 사용 항의 서한 발송을 보도했다.

'슈프림' 은 21 S/S 컬렉션에서 발표한 '블레싱 립스톱 셔츠' 에 ' 2015년에 입적한 故 루앙 포 쿤 파리수토(Luang Phor Koon Parisutho) 스님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 셔츠 뒷면에 스님이 쪼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우는 모습과 태국 전통 부적을 나염했다.

태국국립불교청의 조사관 겸 대변인은 "이 문제를 나몽 송가롬 청장에게 보고했다. 사무국은 '슈프림' 에 스님의 사진을 의류에 사용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명한 서한을 보냈다. 이후 디지털경제사회부에도 조사를 의뢰할 것이다. 나콘랏차시마에 있는 왓 반라이 사원에 스님 사진 사용 허가를 요청했는지 확인했으나 해당 브랜드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전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논의해 브랜드의 목적이 무엇인지 밝혀낼 것"이라고 전했다.


논란이 된 슈프림의 블레싱 립스톤 셔츠.
사진출처=슈프림 웹사이트

루앙 스님의 친척은 "해당 브랜드의 컬렉션을 보지는 못했지만 사진에 대한 인상착의를 들은 결과 스님의 허락 하에 다른 친척이 찍은 것이 틀림없다. 그 사진은 사찰 운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판매했다. 왓 반라이 사원이 루앙 스님의 사진이 들어간 티셔츠를 몇 년간 생산하지 않은 까닭은 옷이 낡았을 때 부적절한 장소에 가게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2021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옥천범음대학은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기관으로써 1968년 옥천범음회로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되고 2009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불교의식, 불교음악, 불교무용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일반인 및 학승을 모집합니다.

교과과정						
학 과		교육내용	요 일	시 간	모집인원	담당교수
1학년	상주권공 Ⅰ	불공 / 시식 / 예불 / 상주권공 및 작법	월	오후1시 ~ 5시	○○	이기봉 스님
2학년	상주권공 Ⅱ	시련 / 대령 / 관욕 및 상주권공재의식 시연	수	오후1시 ~ 5시	/	마일운 스님
3학년	각배	각배 과정	목	오후1시 ~ 5시	편입생 약간명	김태호 스님
4학년	영산	영산 과정	금	오후1시 ~ 5시	/	조인각 스님
불교의식 이론		영산재의 불교예술적 특징	화	오후1시 ~ 4시	/	심만춘 스님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 : · 수 료 과 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 (음악, 무용과) 등 일반인
· 편입학과정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
▷ 전형일정 : 2021년 2월 1일 ~ 2월 28일
▷ 개 강 : 2021년 3월 첫째주
▷ 전 형 료 : 50,000원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교 교학처 및 전화 접수
▷ 특 전 : ① 졸업자에게는 대한민국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회원 및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
②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 혜택 부여, 국내외 공연 시 우선 선발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장 조고담 합장

037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사길 120 Tel 02)392-3234 Fax 02)392-3239 홈페이지 : www.okchunbud.kr/